

인턴사원 채용시즌

구직자들 "도전하세요"

대학교 여름방학을 한달여 앞두고 주요 기업들이 일제히 인턴사원 모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인턴사원으로 근무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반기 취업시즌을 놓친 구직자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볼 만하다.

15일 온라인 리크루팅 업체 잡코리아(www.jobkorea.co.kr)에 따르면 올해 하계 인턴사원 채용을 진행중인 롯데그룹은 롯데쇼핑과 롯데삼강, 롯데푸드스타 등 각 계열사별로 23일까지 지원서

류를 접수한다. 4년제 대학 4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며 인턴사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우수 이수자는 올해 롯데그룹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모집시 일부 우대받거나 정사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

GS건설은 건축사공, 토목사공, 전기사공, 설비사공 등 분야에서 일할 하계 인턴사원을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 내년 2월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중 직전학기 누계평균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인턴십 프로그램 이수자는 하반기 신

입사원 정기채용시 우대받는다.

LG실트론은 공정기술 엔지니어, 장비기술 엔지니어, 품질관리 엔지니어, R&D 등 분야의 하계 인턴사원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KOCC도 연구개발 부문 인턴사원을 채용중으로 내년 2월 졸업 예정자로 화학공학, 재료공학, 공업화학, 산업공학, 소재공학 관련 전공자여야 지원할 수 있다.

LG텔레콤은 오는 16일까지 하계 인턴사원을 세자릿수 규모로 모집하는데 올해 8월이나 내년 2월 4년제 대학 졸업 예정자 중 토의 점수 750점 이상(인문계 기준, 이공계는 600점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 예경은 오는 20일까지 내년 2월 졸업 예정자나 기 졸업자를 상대로 기획, 영업, 생산관리 부문의 인턴사원을 뽑는다. /연합뉴스

일하는 노인이 '건강' 의료비 年18만원 감소

이석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5일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연간 의료비 18만여원을 덜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정책 & 지식' 포럼에서 "이 사업이 추진된 2004년~2006년 상반기 절감된 의료비는 295억3천400여만원에 달해 전체 사업예산 1천828억원의 16.2%에 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참여정부 이후 노인복지 4대 핵심 과제 중 선택돼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2004년부터 추진돼온 사업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사업 참여 이전 연의 의료비는 94만여원이었으나 사업 참여 1년 이후엔 75만1천원으로 18만9천원(20.1%)이 절감됐으며 2년 후엔 21만8천원(23.2%), 3년 뒤엔 20만9천원(22.3%) 감소했다고 그는 밝혔다.

이 교수는 특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노인들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이후 의료비를 크게 절감했다고 소개했다.

사업 1년차엔 29만여원, 2년차 32만6천여원, 3년차 37만5천여원의 의료비가 절감돼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이 일을 한 기간이 길수록 건강 상태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한국 공장짓는데 관문만 35개

소요시간 1년3개월·비용 1억 3,000만원 상의 "중복 행정 절차 획기적 개선 필요"

얼마전 모 지역에 공장 설립을 추진해 온 J사는 끔찍한 경험을 해야 했다. 시장 흐름을 따라잡기 위해 하루 빨리 공장을 지어야 했지만 공장설립 과정에서 불명확한 규정과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J사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 제안을 제출한 후 공장설립까지 소요된 시간은 총 1년3개월, 이 기간에 들어간 비용만 1억3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사전환경성검토 인·허가 기일이 '30일'로 규정되어 있지만 지방 환경청 공무원의 거듭된 보완요청으로 규정 기일의 6배인 6개월이나 소요됐던 것이다.

기업들이 공장을 새로 짓기까지는 30개가 넘는 규제를 적용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공장설립 제도개선 및 절차간소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개별기업은 새 공장을 지을 때 입지선정에서 공장설립 승인까지 35개의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수도권에 공장을 지으려고 한다면 적용되는 규제는 4개가 더 추가돼 총 39개의 규제를 확인해야 한다.

산단단지개발 방식을 택하더라도 기업들은 비수도권의 경우 32개, 수도권의 경우 36개의 규제를 확인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공장설립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모순적인 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며, 지자체 조례는 허용하지만 국토계획법에서는 불허하는 법제도상의 충돌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공장설립에 따른 기업들의 각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장설립 제도의 정기적인 정비와 함께 행정절차 간소화, 각종 영향평가제도의 획기적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공장설립 제도와 관련, ▲연접개발 규정 명확화 ▲개발입지 기준 유연화 ▲자연보전권역내 산업단지 지정규모 상향 ▲민간산업단지 지정요건 현실화 ▲산단단지내 공공임대주택의 무공급비율제도 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통합 운영, 대기업 공장

개별기업 공장설립시 규제 현황

- 입지선정단계 -	- 공장설립 인·허가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입지기준 확인 ●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 ● 용도구역별 행위규제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기준 확인 ● 자연환경·생태계 입지제한 규제 ● 수변구역 입지제한 규제 ● 수산자원 보호 관련 입지규제 ● 문화재보호 관련 입지규제 ● 공원 관련 입지제한 규제 ● 농지 입지제한 관련 규제 ● 산지 입지제한 관련 규제 ● 초지 관련 입지규제 ● 공원·사방지 내에서의 입지제한 규제 ● 토양보전지역 내 입지제한 ● 산수원보호구역 내 산지전용제한 ● 관리지역내 입지규제 ● 공공(특정)시설 보호 입지제한 규제 ● 농지전용 기준 ● 산지전용 허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적성평가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 교통성 검토 ● 경관 검토 ● 문화재지표조사 ● 제2종지구단위 계획 결정 ● 농지·산지·초지전용 협의 ● 지구단위 교통영향평가 ● 공장설립승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 집합관련법령 일치 ● 공장설립 교통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 재해영향평가 ● 에너지이용효율성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심의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설립 심의와 공급지역물량 심의의 통합 운영,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및 지방산단지 지정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확대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의 관계자는 "기업이 계획된

어린이 펀드 가입 연령 18세 이하로 제한 추진

앞으로 어린이펀드의 가입연령이 18세 이하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펀드 환매도 성인연령이 돼야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어린이펀드의 올바른 시장정착을 위해 어린이펀드를 일반펀드와 차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린이펀드는 장애의 교육자금 마련과 어린이들에게 금융·경제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부모가 어린이 명의로 가입해 정기적으로 소액을 적립하는 펀드로 대개 펀드 이름에 '주니어', '꿈나무' 등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어 어린이가 아니라도 가입할 수 있고 현재까지 설정된 19개 어린이 펀드 등 96%가 일반 주식형 펀드와 일반펀드와 운용방법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어린이 펀드의 특성에 맞춰 가입대상을 제한하는 한편 환매도 일정기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대상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등 일반펀드와 차별화를 유도하고 장기투자자는 어린이 펀드의 성격을 감안해 보수수준도 조정, 투자비용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김철수기자 bungy@kwangju.co.kr

기업들 1,000원어치 팔아 56원 벌어 수익성 2003년 이후 최악

환율하락·유가상승 여파

환율 하락과 유가 상승의 여파로 경영여건이 악화하면서 지난해 기업들의 수익성이 최근 3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연간 매출액 25억원 이상인 5천101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15일 발표한 '2006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기업의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5.6%로 전년의 6.2%에 비해 0.6%포인트 하락했다.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매출에서 차지하는 경상이익의 비율로, 기업들이 2005년에는 1천원어치를 팔아 62원을 남겼지만 작년에는 56원밖에 벌지 못했음을 뜻한다.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2003년 4.8%에서 2004년 7.0%로 개선됐다가

2005년 6.2%, 2006년 5.6%로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5.2%로 전년(5.9%)보다 0.7%포인트 떨어지며 2001년의 5.1% 이후 최저를 기록하는 등 기업의 수익성 관련 지표는 뒷걸음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5.3%로 전년보다 0.8%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는 미국(7.1%)보다는 낮고 일본(4.5%)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기업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악화함에 따라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수치인 이자보상비율도 전년도 460.3%에서 지난해 413.9%로 급락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중소기업과 수출기업보다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방송 음향기기 다모였네 세계 각국의 우수한 방송, 영상, 음향 관련 장비들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하는 제17회 국제 방송음향장비기기 전시회(KOBA 2007)가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된 가운데 한 방송용 카메라장비 업체가 모의 스튜디오를 설치해 관람객들에게 카메라의 다양한 기능과 성능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노부모 2주택 보유땐 청약 감점

9월부터 청약가점제 도입

60세이상 부모나 조부모를 모시고 사는 무주택 세대주라도 이들이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으면 청약가점에서 감점을 당하게 돼 '내집 마련'이 어려워진다.

30세이상 미혼자녀는 1년이상 동거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가점을 받으며 인터넷 청약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9월 청약가점제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7월 확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인 청약가점제는 3월29일 공청회에서 발표됐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됐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이 청약 가능한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공공택지 포함)은 현행 추첨방식으로 25%를 뽑고 나머지 75%는 가점제로 뽑도록 했다.

전용 85㎡ 초과 주택은 채권입찰제를 우선적용해 입찰금액이 큰 사람에게 우

선권을 주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절반씩 뽑도록 했다.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85㎡이하 공공주택은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 가입자의 점수는 최대 84점으로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수(5~35점), 가입기간(1~17점)에 따라 산정된다.

유주택자는 가점제 공급 주택의 청약 순위가 2순위 이하로 밀리게 되며 특히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한채당 5점씩 감

"건설대금 못받아도 하도급대금은 지급해야"

공정위, 그래스텍 시정명령

건설공사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도 하도급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공정위의 결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의정부 용현동 운동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해 하도급대금 2억8천569만원과 지연이자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체 그래스텍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업체에 대해 하도급대금과 함께 공사 목적물을 인수한 지 60일 뒤 대금을 받지 못해도 지급일까지 연리 25%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 업체는 2006년 1월 공사 목적물을 인수했으나도 불구하고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금호 2차 진흥 더블파크 330세대 분양

내일 모델하우스 오픈

진흥기업(주)은 "광주시 서구 금호동에 '금호2차 진흥 더블파크' 330세대를 분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더블파크는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7개동으로 330세대로 모두 49평형으로 구성된다. <조감도>

단지내 녹지율이 무려 34%에 달할 정도로 생태자연을 그대로 살렸으며 4베이(거실과 방 전체 4칸중 3칸이 전면 발코니)와 마주보는 설계 시스템을 적용해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특히 시스템에어컨, 전열환기시스템, 절수형 페달밸브 등 최첨단 시스템을 제공하는 한편 가변형 벽체를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제2순환도로, 첨단산단 연결도로를 통해 광주 전지역 연결이 수월하고, 만호초, 삼부중, 광덕고 등 인근 명문 초·중·고교가 있는 등 광주 8학군이라 불릴 만큼 교육여건도 우수하다.

진흥기업 관계자는 "광주의 행정·문화·쇼핑의 중심에 자리잡아 명실공히 광주의 랜드마크 기능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문의 062-352-9595.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은행 스톡옵션 '돈잔치' 1인당 평가차익 6,300만원

'역시 은행!' 4천명이 넘는 은행업계 종사자들이 미행사 스톡옵션으로 1인당 평균 6천300만원에 달하는 평가차익을 올린 상태로 나타났다.

은행장 등 임원진이 대부분 대상자이지만 일반 직원들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돼 증권 샐러리맨의 연봉과 맞먹는 수준의 스톡옵션 대박을 누릴 전망이다.

15일 증권신문거래소가 집계한 신한지주, 국민은행, 외환은행, 우리금융, 부산은행, 하나은행, 전북은행 등 동시에 상장된 7개 시종은행 미행사 스톡옵션 현황에 따르면 미행사 스톡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임직원은 총 4천271명으로 이들의 평가액은 11일 종가 기준으로 8천541억원에 이르고 있다.

1인당 2억원 상당의 행사되지 않은 스톡옵션을 보유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과거 스톡옵션 부여시 정해진 행사가격과 현재 주가를 비교할 경우 평가차익은 2천710억원, 1인당 6천3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연합뉴스